

4월 10일(월) / 민7-9장

▶**내용요약:** 민수기 7장은 회막 건축이 마친 후 이스라엘 12지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동일하게 드린 예물에 대해 반복해서 기록한다. 8장은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레위인을 정결예식 후에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한다. 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생활에서 처음으로 맞게 되는 유월절 준수가 나온다. 이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또한 성막의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질문:** 레위인은 회막 봉사를 25세부터 시작해서 몇세까지 할 수 있었는가?(8장)

▶**생각하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맞이하는 첫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1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430년간 애굽 생활을 하면서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은 해방의 날이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신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백성이 기념하며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자!**

4월 13일(목) / 민16-18장

▶**내용요약:** 16장은 고라와 그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자도자 위치에 도전하여 반역을 일으킨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엄중하게 보시고 이를 심판하신다. 17장은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아론의 제사장직 위치와 권위를 확인하신다.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에서 봉사해야 하는 직무와 그 대가로 주어지는 권리와 보수를 설명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 이니라”(18장)

▶**생각하기:**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성막 섬기는 직분을 주시면서 선물로 주셨다고 한다.(18:7) 하나님은 자기 일을 선물로 우리에게 맡기신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나 직업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한국성서대학교의 학생됨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자!

4월 16일(주일) / 민25-27장

▶**내용요약:** 25장은 모압평지 싯딤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초대를 받아 바알보올의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음행을 저지른다. 그러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내어 음행한 자를 죽이므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낸다. 26장은 가나안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2차 이스라엘 인구조사가 기록된다. 먼저 각 지파의 20세 이상된 자들을 계수하고 각 지파의 인구에 따라 공평하게 땅을 나눈다. 마지막 부분에

4월 11일(화) / 민10-12장

▶**내용요약:** 10장은 나팔신호가 의미하는 규정을 알려주고 이스라엘이 거의 일년간 머물러 있던 시내광야를 출발한다.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자 여호와와 불이 진영을 태워버린다. 또한 만나에 싫증난 백성들이 불평하고 고기를 원하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신다. 12장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는다.

▶**질문:** 하나님께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다고 칭찬 사람은 누구인가?(12장)

▶**생각하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편에 서신다. 오히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는다. 일반적으로는 이방 여인을 취한 모세의 행위가 잘못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고 그의 손을 들어주신다. 모세처럼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자!

4월 14일(금) / 민19-21장

▶**내용요약:**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깨끗케 하기 위한 정결예법이 기록된다. 특히 시체를 만진 자의 부정을 위한 정결예법을 알려주신다. 20장은 이스라엘이 물이 없어 원망하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시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결국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21장은 아랏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나 백성의 원망이 이어지자 하나님은 불뱀이 백성들을 물도록 한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이를 쳐다보면 살 수 있었다.

▶**질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기에 이를 가리켜 무슨 물이라고 불렀는가?(20장)

▶**생각하기:**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은 프리마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된다. 백성에게 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일군에게 요구되는 것은 인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서는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자들이 모두 사망한 사실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가나안땅에 들어가는 특권이 주어진다. 27장은 슬로브트의 딸들이 자기들의 기업을 요구하고 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다.

▶**질문:** OX로 답하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의 후계자가 된 인물은 갈렙이다”(27장)

4월 12일(수) / 민13-15장

▶**내용요약:** 13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정탐꾼들이 40일간 가나안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땅은 비옥하지만 거주민들이 매우 크고 강하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 14장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반역하며 애굽으로 되돌아가려 한다. 이에 하나님은 가나안정복을 40년 연기하시고 20세 이상 성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다. 15장은 가나안땅에 들어가서 지켜야할 규례들을 기록한다.

▶**질문:** 가나안땅을 탐지한 정탐꾼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로 눈의 아들이며 모세가 여호수아라 불렀던 인물은 누구인가?(13장)

▶**생각하기:**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들은 아낙 자손을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기에 결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으리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다. 이와 달리 동일한 모습을 보고 온 갈렙은 고백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14:9)고 외친다. 갈렙은 가나안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4월 15일(토) / 민22-24장

▶**내용요약:** 22장부터 24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접근에 두려움을 가지게 된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다. 22장에서는 발락이 발람을 초대할 가운데 나귀는 여호와와 사자를 알아보는 나귀와 달리 발람은 이를 알아채지 못한다.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3번이나 시도하는 모습이 나온다. 24장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계획이 실패하고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한다.

▶**질문:** 발람의 예언 가운데 민족들의 으뜸이긴 하지만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라고 한 족속은?(24장)

▶**생각하기:**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자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타나서서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22:12)고 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과 은혜로 대하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진정한 복**이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복을 받은 자들인가?

▶**생각하기:**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이스라엘이 불평하자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다. 이후 40년이 지나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이스라엘은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시내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26:64)라고 기록한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한 사람도 남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신실하게 지키는 분**임을 알게 된다.